

엄마대학원생의 학업 - 육아 양립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서정원 **

초 록

본 연구가 주목한 엄마대학원생은 엄마와 대학원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으로 그동안 학문적으로 알려진 바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는 엄마대학원생들의 학업 - 육아 양립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엄마대학원생은 제한된 시간과 물리적 힘을 두고 대학원생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경합하는 역할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엄마대학원생은 우선, 대학원생인 엄마로서 생산과 재생산의 딜레마, 우울감과 자격지심, 모성비난과 자책감을 경험한다. 또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받는 나쁜 엄마라는 모성비난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킨다는 자책감도 공부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다음, 엄마인 대학원생으로서 대학원동료와 교수의 이해부족을 대면하게 되고, 대학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상이한 시간체계를 살고, 엄마대학원생의 젠더수행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에서 모성성의 소외를 경험한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국외의 연구에서 나타난 부분과 유사점도 있지만, 국내 대학원 교육의 특성에 따른 상이한 경험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엄마대학원생, 학업-육아 양립, 현상학적 연구

I. 서 론

1. 문제제기

한국 대중매체에서 엄마대학원생은 ‘엄마 대학원생’, ‘스터딩 맘’, ‘공부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린다.¹⁾ 그리고 신문 등의 매체에서 엄마대학원생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정책연구사업임(No.200-20140096)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들은 ‘워킹 맘’과 ‘전업 맘’ 그리고 ‘대학원생’의 교집합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엄마대학원생들의 수가 얼마인지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 평균 첫 출산연령과 대학원생의 연령에 관한 통계로 간접적인 추측만이 가능하다. 201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여성의 수는 총 15만 9천여 명으로 보고되었다.³⁾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여성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은 30.73세인데, 이를 초과한 여성 대학원생의 수는 8만 7백 명으로 전체 비율의 50.5%를 차지한다. 즉, 우리나라 여성이 첫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시기와 대학원 재학시기가 겹치는 것이다. 이렇듯 유자녀 대학원생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일 수 있는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계는 아직 이들의 문제를 학계의 연구로는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유자녀 여성대학원생의 학업-육아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학칙이나 지원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⁴⁾, 이에 관한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⁵⁾

그렇다면 정부는 엄마대학원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유자녀 대학원생은 학생, 여성, 어머니이지만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을 인적자원 육성,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한국연구재단, 2014). 다만,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는 가임기의 여성에 대한 출산장려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여기서 엄마대학원생은 ‘가임기의 여성’과 ‘고학력 여성’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학업경력이 단절되는 것이지 직업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정책의 대상으로 엄마대학원생들이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4).

1) 경향신문(2015. 01. 16), 국민일보(2014. 06.09), 여성신문(2014. 04. 05), 중앙일보(2014. 06. 26), 한국대학신문(2014. 12. 14), 한겨레 신문기사(2014. 05.09) 참조

2) 여성주의 저널 일다(2015. 02. 04)

3) 휴학생의 수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4) 「임신·출산·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1년의 휴학을 보장하고 이를 총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규정은 존재함.

5) 엄마대학원생에 관한 국내의 연구로는 기혼여자대학원생의 다중역할수행 경험에 대한 김은하 외의 연구(2008)에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제도의 사각지대 안에서 엄마대학원생이 직면한 학업-육아 양립의 문제는 개인의 현명하지 못한 선택에 대한 결과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몇 차례의 언론보도를 통해 대중에게 소개된 후 인터넷 댓글을 통한 공감여론도 조성되었지만, 대체로 엄마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학생이 아이를 낳았다’거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쟁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자녀를 희생한다’와 같은 비난성 여론이 더 우세했다.⁶⁾ 이런 비난의 기저에는 직장에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여성도 있는데 ‘팔자가 좋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것’⁷⁾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고학력 여성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의 생애주기에서는 특정시기에만 출산이 가능하고 그 시기가 대학원 재학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 여성 대학원생은 출산을 유예하거나,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선택 중 하나를 택일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여성 대학원생이 이러한 맥락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학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국내에서는 여성대학원생의 학문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의 맥락에 관한 연구가 아직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엄마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자녀양육의 병행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엄마대학원생이 경력추구의 맥락 속에서의 경험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엄마대학원생이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무엇을 경험하는가?

6) 각주1의 기사 참조.

경향신문 기사 ‘전쟁과 배려사이... 한국에서 스타딩맘으로 산다는 건’에 대한 네이버 댓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563226> (2015. 02. 22 검색)

7) 위의 경향신문 기사 댓글 참조.

II. 문헌 고찰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학계에서는 여성의 학계 진출 증가, 학계의 젠더편향, 여성의 학업-육아 양립 이슈 등에 대한 현상을 탐구하고, 남성 중심적 문화와 제도적 미비, 그리고 학계에서 여성이 여러 역할을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려는 학문적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Kuperberg의 연구(2009)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대학원에 등록했던 2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원 과정에서의 모성(motherhood)에 대한 인구학적 관점의 분석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드러난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대학원생이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절반 정도는 대학원 시기에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인구학적 분석에 기반하여 Kuperberg는 대학원생을 위한 자녀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휴학)의 제도정비와 자녀보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현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인구집단으로서 엄마대학원생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개입을 제안한다.

Andres의 연구(2004)는 ‘학계에서 여성의 수가 적은 것은 여성이 선호에 따라 학문정력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반박한다. Andres는 대학원생 468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교육, 연구역량 등에서 비슷한 위치나 선호를 보이는 남녀대학원생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가족계획과 이동성 측면에서 남녀 대학원생의 인식 차이가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여성 대학원생은 남성에 비해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에 대해 Andres는 학계의 분위기와 문화가 자녀를 가진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이는 학계에 여성의 수가 남성에 비해 적은 것이 여성의 비선호때문이 아닌,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 때문임을 밝힌다.

그렇다면 가족친화적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다면 여성의 수가 더 많을까? Mayer와 Tikka의 연구(2008)는 미국과 노르딕 국가(핀란드, 스웨덴)의 학계에서 박사과정에 대한 학비감면과 생활비지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가족친화정책적 측면에서는 차이를 가진다. 이 연구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 두 국가군의 학계 젠더편향을 비교한다. 노르딕 국가는 미국에 비해 가족친화정책이 사회적으로 더 잘 만들어져있어 학계의 젠더편향이 미국에 비해 덜 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정도는 다르지만, 미국과 노르딕 국가의 학계에서 젠더 편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가족친화정책으로 완화를 한다고 하여도, 학계에 만연해 있는 사회적 제반 조건들이 남성에게 유리하고, 젠더 고정관념의 영향 때문에 여성이 불리함을 겪어 젠더편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제도와 제도 너머의 문화는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위의 연구결과는 개인적 경험을 소개한 Tillmann의 연구(2011)와 Schneider의 연구(2008)의 연구를 통해 상세히 드러난다. 먼저 Tillmann은 자신의 경력과정을 소개한 자전적 문화기술지에서 대학원 과정, 학계의 구직시장, 제도적 환경 속에서 자신이 왜 자녀출산을 보류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준다. 박사학위를 받고 구직에 성공해도 종신교수직을 받기위해 학문적 생산성 증명에 열심을 기울여야 했던 삶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쓸 에너지와 시간은 제한적이었다. 학문적 생산성은 증명하였지만,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가능한 시기는 멈추어있지 않았다. 자녀가 없는 부부로 살며 행복함을 느낄 수 없다는 연구자의 배우자로 인해 ‘자녀가 없는 이유로 쉽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 배우자는 자녀를 둘 가진 여성과 재혼하여 다시 가정을 꾸렸다. 이 연구는 여성의 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학계의 경력과정에서 한 여성이 어떻게 적응하고, 삶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엄마인 자신 안에 학습되고 주입된 엄마 역할의 고정관념을 성찰한 Schneider의 연구는 박사과정의 학생이 유아기의 자녀와 주 5일 떨어져 지내며 학업에 집중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자녀를 떼놓고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자기 내면의 죄책감과 주변사람의 비난의 메시지,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학업만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의 의미,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힘겨루기 등이 소개된다. 특히 애착이론, 어머니 주 양육자 모델의 메시지에 자신의 심리적 변화를 성찰한 부분은 젠더 고정관념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불리한 현실을 보여준다.

위의 연구들이 특정 시기, 인구집단, 사례에 집중한 것과 달리 Mason &

Ekman의 연구(2007)는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의 생애과정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불리함, 차별, 부담 등을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대학원생에게 사회적으로 여성은 자녀를 낳아야하고 길러야 한다는 통념과 학업과 어머니 역할 수행이 동시에 수행되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가 여성대학원생의 직업적 성취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밝힌다. 특히 엄마대학원생이 어린 아이를 돌봐야 하는 두 개의 몸 이슈(two body problem)를 경험하고, 학업-육아 양립을 지지해줄 멘토나 제도적 지원도 매우 제한적인 현실을 드러낸다.

앞서 살펴본 결과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육아 양립 경험, 학계에서 젠더편향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고찰들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엄마대학원생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엄마대학원생의 인구학적 특성과 분포 현황과 같은 통계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학업-육아 양립경험이 어떠한지는 김은하 외의 연구(2007)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엄마인 대학원생은 주변체계의 지원을 획득하지 못하면 학업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는다고 보고한다. 이런 결과는 우리사회가 여성대학원생에게 요구하는 기대들이 모순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드러낸다. 사회는 고학력 여성에게 경력을 포기하지 말고, 미래세대의 성장 동력이 되라고 말한다. 동시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한다. 남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일터는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공공연히 임신순번제를 따라야 한다. 직업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국가와 사회, 일터, 그리고 가정에서 주는 반복적인 메시지는 상호공존이 어려운 내용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⁸⁾

이에 본 연구 엄마대학원생 학업-육아 양립의 경험에 주목한다. 이는 국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새롭게 등장한 인구집단인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맥락에서 고학력 여성이 요구받는 경제적 생산과 생물적 재생산의 경험에 대한 고찰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8) 이것들은 부정금지의 언어 형태를 가진다.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looser’ 취급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눈치 없이 쓰면, 불이익을 각오해라”와 같은 상호모순적인 메시지는 사방에서 들려온다.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들에서 보편적 본질을 이끌어내어 기술한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또 의미는 어떻게 부여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 2008; 고미영, 2012). 인식과 의미에 주목하는 만큼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둔다. 과학만능주의를 경계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전통적 철학으로의 회귀’, ‘판단중지(epoche)로 대표되는 전제(presupposition)하지 않는 철학’, ‘의식의 지향성(intentionality of consciousness)’, 그리고 ‘주체-객체의 이분법 거부’가 현상학이 서있는 철학적 기반이다(Creswell, 2007).

그렇다면 본 연구는 왜 현상학적 연구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집단은 엄마대학원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마대학원생은 학문후속세대로서의 학업과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집단으로서 이들의 생활실태나 특성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엄마대학원생의 대학원생 역할 수행과 엄마역할 수행 경험의 상세하고 복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본 연구로 하여금 질적연구를 수행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엄마대학원생 당사자들의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해하는 현상학적 연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Creswell, 2007). 또 그 경험은 스스로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엄마이며 대학원생으로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험을 가진 엄마대학원생을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표집의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구분	연령	학위 과정	등록 여부	자녀 수	자녀연령	전공	휴학기간
A	33	박사수료	등록	1	3	인문계	-
B	34	박사수료	등록	2	4/3	이공계	-
C	34	박사과정	등록	1	2	예체능	1년
D	34	박사수료	미등록	1	3	인문계	5년
E	36	박사수료	등록	1	4	사회계	-
F	37	박사수료	등록	1	2	인문계	-
G	40	박사수료	등록	2	7/4	사회계	1년 6개월
H	37	박사수료	미등록	2	9/7	이공계	6개월
I	38	박사수료	미등록	1	2	사회계	2년
J	29	박사수료	등록	1	3	이공계	6개월
K	29	박사수료	등록	1	8 개월	이공계	3개월
L	34	박사과정	등록	1	4	사회계	-
M	37	박사과정	등록	2	7/3	예체능	2년
N	30	석사과정	등록	1	3	사회계	6개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전공분야였는데, 이는 연구자가 부모학생조합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전공분야에 따라 코스워크와 연구 프로젝트, 대학원 동료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의 양상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공계 대학원생은 프로젝트 참여를 중심으로 대학원 생활이 진행되어 임신·출산이라는 생애사건이 동료와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개인적 문헌 연구 위주로 진행되는 인문계의 경우 임신·출산이 대학원 동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기 때문이다. 이에 인문계 3명, 이공계 4명, 예체능계 2명, 사회계 5명을 부모학생조합을 운영하는 A대학교와 B대학교 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2) 면접질문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엄마대학원생이 학업-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무엇인가?’이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면접질문을 아래와 같이 반구조화하여⁹⁾ 연구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 기본질문 : 나이, 성별, 자녀 수, 자녀 나이, 전공, 학위 과정, 휴학 여부 및 기간 등
- 연구질문 : 엄마대학원생이 학업-육아 병행과정에서 무슨 경험을 하는가?
 - 학교나 가정에서 본인에게 특정 고정관념적인 역할로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느낀 적이나 소외감을 느낀 경험
 - 학생과 엄마로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비난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험
 -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며 자녀를 기르는 여성으로 느낀 성차별적 경험

3) 자료수집과 분석

자료는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면접은 1회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1~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연구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아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해 대부분의 경우에 1회의 면접에서 풍성한 경험과 이야기들의 수집되었다. 그러나 그것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과 의미는 추가면접과 SNS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보완하였다. 면접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는 엄마대학원생의 경험 속에 드러난 공통점과 전공별 차이, 개인차를 인지할 수 있게 되었다. 10 번째 면접자를 면접한 이후에 수집되는 자료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자 스스로 자료의 포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자 4명의 더 면접하여 총 연구참여자가 14명이 되었다. 한편, 면접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지정하는 곳을 위주로 하여 조용한 커피숍, 공공장소의 로비 등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선택하였다. 대화의 내용은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했고, 빠른 시일 내에 전사하여 텍스트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Mustakas가 제시한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1994). Moustakas의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첫째, 연구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을 기술하고, 둘째, 의미 있는 진술의

9)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의 발견을 통해 엄마대학원생이 경험하는 것이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억압의 경험과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여성의 억압적 경험에 대한 Bartky의 현상학적 연구(1990)에서 드러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이중구속', '성차별'의 프레임을 반구조화한 면접질문 구성에 활용하였다.

목록을 만든다, 셋째, 각 진술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며(horizonalization) 중복되지 않는 진술들을 나열한다. 넷째, 진술을 의미 단위(meaning units) 혹은 주제(themes)로 묶어낸 후,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과(textual description), 그 경험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structural description)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현상에 대한 조직적 기술과 구조적 기술을 혼합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기술함으로써 경험의 본질을 보여준다.

4) 연구자의 선이해

질적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료수집의 도구이다. 특히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자 자신이 가진 전제와 가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Colaizzi, 1978). 괄호 치기(bracketing) 혹은 판단중지(epoche)를 통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거리두기를 시도한다(Creswell, 2007). 본 연구자는 2012년 2월부터 부모학생조합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엄마대학원생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학업단절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자녀를 동반하여 학내 시설을 이용하며 자녀를 동반 이용자가 고려되지 않은 학칙이나 시설이용 지침에서 의도하지 않은 차별(unintended discrimination)과 배제를 경험(exclusive experience)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내 부모학생모임의 조직을 통한 항의방문, 신문기고, 서신전달, 정치인 면담 등의 권익옹호활동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는 부모학생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량적·정성적 측면의 근거들이 전무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통계』와 각 대학의 통계연보들에서도 대학원생의 기혼여부를 비롯한 엄마대학원생의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가와 대학이 정량적 자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정성적 연구가 부모학생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본 연구자가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연구자는 이런 특성들이 연구에 미칠 영향을 인식하고 연구에 임하였다.

IV.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육아 양립 경험

1. 공부하는 엄마의 사정(事情)

엄마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엄마로서의 경험은 경력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여성전문직 혹은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과 유사한 맥락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일정기간 경제적 보상을 유예한 집약적인 정신적 노동을 수반하는 학문의 과정은 ‘엄마 됨’이라는 과업과 조우하며 워킹맘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경험들을 만들어 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생물적 재생산과 학문적 생산 과정의 첨예한 대립, 이 과정에서 비롯된 우울감과 자격지심, 주변인과 자기 자신의 모성비난으로 구분되어진다.

1) 생산과 재생산의 딜레마: 학업에서의 낮은 자기효능감

엄마대학원생은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을 재생산하고, 학문적으로는 연구의 결과를 생산하는 과업에 참여한다. 인간을 재생산 한다는 것, 즉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일정기간 생물학적으로 온전치 못한 존재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원의 수업과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사용의 전면적인 재조정, 또 자신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하향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참여자 A, G, D는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시간과 체력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과 그로인해 자신이 낸 학문적 성과물에 대한 자신과 주변의 인식에 대해 구술하였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결과물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연구참여자 G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증명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서술하였다. 연구참여자 D도 가정과 육아가 공부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형성하며, 주변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도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한다.

“내가 그 전에 120을 쥐어짜서 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50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는 데에 정말 오래 걸렸어요....아이가 나오고

나서는 내게 주어진 물리적 절대적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를 재우고 나서 밤을 새워서 하더라도 그 전에 하던 것을 생각하고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너무 형편없고 이걸 결과물이라고 어디 들고나가야 되나 내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A〉

“음 지금 되게 힘든 것 중의 하나는 되게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것만 하면 되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내가 하는 만큼 인정받고 못해도 그건 내 탓이고 잘해도 내 능력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이렇게 자꾸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는 거죠.”

〈연구참여자 G〉

“가정을 일구고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모든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일단 그렇게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그런 체력도 확보할 수 없고, 항상 불리하죠. 저한테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게 그렇게 느끼죠. 그리고 사람들은 ... 그걸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 그냥 제가 뒤쳐진 인간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해주죠. 알게 모르게 느끼게 해주죠”

〈연구참여자 D〉

연구참여자 A, G, D는 공통적으로 육아에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공부에 사용할 물리적 자원의 제한과 제한된 자원으로 학업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자기 자신과 주변의 평가로 인해 부끄러움, 자존감의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대부분의 생애를 통해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고, 정체성의 큰 영역을 학습과 관련해 형성해온 한국의 연구중심대학교의 구성원인 엄마대학원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이유로든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육아와 함께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과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우울감과 자괴지심 : 정서적 무력감

출산 후 일정 시기 동안 엄마대학원생은 신체에 대한 회복과 함께 자녀를 전적으로 돌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기간은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엄마대학원생은 우울감과 자격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 우울감과 자격지심을 유발하는 요소는 아이를 동반한 여성으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 경력을 쌓아가는 주변 사람에 대한 비교, 여성에게 주양육의 책임이 부과되는 현실 등으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이 느끼는 울화, 분노, 소외감이 자신이 몸담고자 한 사회인 학계로부터 아이를 동반한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서 비롯되었다. 연구참여자 B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3년 동안 연구를 중단하고 직접 자녀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르게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고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에 대해 자신이 분노하고 자격지심을 느꼈던 경험을 소개했다. 이는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정이었어도 ‘잘 나가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위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른 연구참여자의 경험에서도 이런 모습은 유사하게 드러난다. 연구참여자 G는 남편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해온 업(業) 그들에게 그에 걸 맞는 직(職)을 부여하는데 비해, 자신은 육아와 함께 학문을 지속해왔지만 박사수료생이라는 현재의 신분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 선택에 대한 후회와 자괴감을 드러냈다. 한편, 연구참여자 I는 박사수료 후 출산하였고, 출산 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부담을 거의 대부분 감당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화가 난 자신을 발견한다.¹⁰⁾ 연구참여자 I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을 쓰도록 훈련받아 온 자신이 자신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활동과 분리되어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부분의 시간과 힘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또 여성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

10)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인지’알 수 없는 상태는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에게서 드러나는 무기력(powerless)과 맥이 닿는다(GlenMaye,2003). 또한 Bartky는 여성이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자아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기로부터의 소외’를 경험한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자는 이런 맥락에서 연구참여자 N의 ‘누구에게 화가 난 것인지’알 수 없는 상태가 자기 발전에서 소외된 것과 무력감의 경험을 보여주는 발견이라고 판단하였다.

“울화. 저는 분노, 그리고 소외감. 뭔가 나 자신과 나의 어떤 내가 가고 싶어 했던 그 사회가 있잖아요. 학계라는 사회로부터 소외된다는 느낌. 너는 부적절 해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공부하다말고 애 키우고 있을 때에는 뭔가 좀 놀리고 주눅 들고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우울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나는 엄마 역할도 해야 하고 학생의 역할도 해야 하는데 차라리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 <연구참여자 G>

“요즘에 애한테 화를 많이 내니까 저 정말 답답한 건.. 저 애는 정말 [너무 가여운거예요].. 제가 좀 우울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울이 뭔지 원인을 알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원인을 좀 바꿔본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막 화가 났다가 차였다가 되게 좋았다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게 이게 내가 애한테 화가 난건지 아니면 애 아빠한테 화가 난건지 나한테 화가 난건지 원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연구참여자 I>

3) 모성비난과 자책감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생은 직(職)이 없이 업(業)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특히 대학원과정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대학원생이 된다는 것은 지적노동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기보다는 지적유희에 대한 비용지불로 여겨질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런 대학원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엄마대학원생에게 특히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는 엄마대학원생은 가족과 주변 지인에 의해 ‘자녀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아이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로 평가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A는 시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직장인도 전문직도 아니며 소득도 없는 자신이 아이를 제쳐두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은 경험을 소개한다. 이는 연구참여자 A가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학업에 더욱 전념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뚜렷한 직업이 있는 것이 아니면 자녀는 엄마가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시부모를 설득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 시도에 대해 연구참여자 A의 시부모는 연구참여자 A를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이를 뒤로 제쳐놓은 엄마로 묘사하는 것은 모성비난이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 A 자신이 스스로가 나쁜 엄마라는 위축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 F는 보육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남편과 어린이집 교사를 통해서 ‘공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 ‘자녀보다 더 공부를 중요하게 여긴다’의 방식으로 모성이 비난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N의 경험은 엄마대학원생이 어린 자녀를 대리양육자에게 맡기고 공부를 하러 학교에 가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비난의 사례를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N은 중학교 시절부터 가깝게 지낸 친구로부터 어린 자녀를 두고 복학하는 것에 대해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키는 나쁜 엄마라는 비난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 N은 오랜 기간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경험하였고, 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엄마대학원생이 공부를 위해 엄마 역할을 대리양육자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모성비난은 대학원에서의 공부라는 일이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에 대한 주 양육부담을 여성이 져야하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도 관습적으로 성역할을 내면화한 여성은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압박감과 자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도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E는 ‘엄마는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어야 한다’라는 관습적 사고에서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또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 스스로 죄책감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준다.

“시부모님은 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이 키우는 것까지 완전히 뒤로 제쳐놓고 하냐. 니가 지금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냐? 니가 전문직이냐? 그것도 아니고 뭐 신분이 되게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져야하는 심리적 부담도 컸고, 좀 우울하더라고요...사회에서 되게 나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연구참여자 A>

“남편 같은 경우도 ‘당신이 좋아서 하는 공부인데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린이집에 지금 0세 반에 **만

제일 오래있어요. 다들 한 시간만 있다가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제 언제 선생님 하고 대화하다가 **가 그나마 적응을 잘해서 선생님 조금만 더 길게 [말겨도 될 까요?]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이 ‘저는 어머니 그러실 줄 아셨어요. 어머니는 공부가 더 중요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은 당신은 엄마인데 왜 공부를[하느냐는 거지]” <연구참여자 F>

“공부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거고 그 친구는. 그러니까 막 그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막 비난하고. ...최소한 두 돌까지는 네가 옆에 있어줘야지 공부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네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연구참여자 N>

“엄마로서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 함께 해줘야 된다는 어떤 본인 스스로의 압박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왜 어린이집에 저렇게 오래까지 맡겨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 자체가 되게 죄스럽다고 느낀다고 해야 하나..” <연구참여자 E>

연구참여자들의 진술 속에 나타난 주변인들과 연구참여자 자신이 가진 ‘어머니상’은 자녀양육의 주된 행위자이며, 자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녀의 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엄마대학원생이 일로써 하는 공부는 이 어머니 역할을 대리양육자에게 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워킹맘과 달리 엄마대학원생의 노동은 당장에 경제적 결과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런 상황에서 엄마대학원생은 육아와 공부를 병행함으로써 주변으로부터 모성에 대한 비난과 사회가 이상화한 바람직한 어머니상을 내면화한 자신으로부터의 자책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2. 엄마인 대학원생의 사정(事情)

엄마대학원생이 엄마라서 겪는 사정은 대학원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한 개인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엄마대학원생의 경험 속에서 그녀들이 엄마이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받거나 배려 받은 흔적은 포착되지 않는다. 오히려 엄마라는 개인적인 역할로 인해 대학

원생으로의 역할에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한 주변의 이해부족, 질타, 학업세팅과 육아세팅의 시간체계가 자연스럽게 연동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 어려움, 학문의 공간이 배태한 몰(沒)젠더성으로 인한 모성배제의 모습이 나타난다.

1) 주변인의 이해부족 : 대인관계에서의 무력감

엄마대학원생은 교수와 대학원동료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엄마인 자신에 대한 주변인의 이해부족을 직면하게 된다. 주변인의 이해부족은 엄마대학원생의 학문적 자질, 태도, 성과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해부족의 결과와 영향은 긍정적 형태를 띤 것이 아니며, 엄마대학원생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다. 여기서 엄마대학원생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며, 주변사람들에 대해 방어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A 와 C는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엄마인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수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를 소개한다. 연구참여자 A는 자신이 연구조교로 도운 교수와 학술논문 공동투고 작업을 하였다. 시기를 조정하여 출산 전에 논문을 투고하였는데, 연구참여자 A가 출산한 후에 이 교수는 연구참여자 A에게 서둘러 박사학위 논문을 쓸 것을 종용하였다. 이런 조언은 연구참여자 A가 이해하기에 자신에 대한 교수의 애정과 호의로 해석되는 부분이었지만, 자녀를 갓 출산하였고, 보육시설에 맡길 수도 없는 형편에서 학위논문 작성에 대한 재촉은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교수와의 학문적 교류가 중단되었다. 연구참여자 A의 경험 속에 드러난 교수는 학생에 대한 애정과 대학원생이 최소한 증명해야 할 학문적 성취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가진 분이었다. 그러나 엄마대학원생을 대학원생으로만 인식하고, 엄마로는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엄마대학원생의 연구자로서의 자질, 학업적 성취에 대한 평가가 엄마인 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난처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도출된 것을 볼 수 있다.

“제가 GIS[강의연구지원조교]도 도와드렸던 교수님인데 되게 서운하게 멀어져버렸어요. 제가 요즘도 계속 좀 피해 다니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그분이란 교류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왜 내가 너 생각해서 그런 건데 게을러가지고 안하나. 빨리 졸업해서 이러면 너도 좋고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냥 게을러서 뒤통무니 빼는 아이쯤으로 낙인찍히더라고요”
 〈연구참여자 A〉

동료대학원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엄마대학원생은 엄마인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에 직면한다. 그것은 지금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상황은 본인의 선택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과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대학원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연구나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난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모습은 특히 이공계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공계 대학원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실험과 연구를 중심으로 대학원생활이 흘러가는데, 학업과 함께 육아를 양립해야 하는 엄마대학원생의 사정에 대한 동료대학원생의 고려가 부재할 경우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참여 태도에 대한 비난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J는 전형적인 이공계 대학원 환경에서 직장처럼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는 연구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연구실 동료들은 엄마대학원생이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엄마대학원생이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동료에게 부과했거나 차질을 빚은 것이 아니지만, 동료들이 연구실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 엄마대학원생은 동일하게 연구실에 있지 않았다는데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성들 간에 더 많은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데, 애기를 낳지 않은 결혼한 사람은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봐 애 낳는 거 미루면서까지 이렇게 [공부에] 올인 하잖아. 넌 대신에 애를 가졌잖아. 그럼 네가 이걸 늦게 하고 좀 못하는 것은 너의 선택에 의한 결과잖아 이런 시선.”

〈연구참여자 F〉

“롤은 이제 [엄마와 대학원생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투입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단 생각은 많이 하죠. 사람들이 좀 편협한 게 자기가 그 상황이 되면 안 그럴 건데 재는 일찍 가네? ...자기 맘에 안 드니까 그걸 뒤에서 욕하는 거죠.” <연구참여자 J>

연구참여자 G는 교수와 대학원 동료들의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이해부족의 이유를 대학원생에 대한 기대, 학생의 본분에 대한 이해 속에는 엄마는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찾는다. 그래서 엄마대학원생에 대해서 마치 ‘엄마가 아닌 것처럼’ 성과를 내고, 엄마의 흔적을 지우고 행동할 것에 대한 무언의 요구에 직면하고, 엄마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전문 연구자가 되길 원하는 대학원생으로서 전문적이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받는 현실을 지적한다.

“엄마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줘야한다 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학생 본분을 다해야지 엄마든 아니든 어떤 상태에 있던 학생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아닌 것처럼 여기서 성과를 내고, 생산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엄마인걸 드러내는 것 되게 unprofessional하다고 하고” <연구참여자 G>

한편, 연구참여자 F는 제도적으로 학업-육아 양립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것과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데 대한 문제의식을 지적한다. 그로 인해 학문적으로 자신이 발전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편, 연구참여자 F는 코스워크 과정에서 수강했던 수업의 중년 여성교수를 통해 현재 경험하는 학업-육아 양립과정에 대해 관조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에 대한 조언을 통해 격려를 경험하였다. 또 이 교수의 학문적 조언을 통해 자신의 글을 발전시켜 학술저널에 투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애기 데리고 갈 수 없는 것? 그런 모성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냥 애기 낳고 키우는 엄마 학생들에 대한 인식? 교수님이나 학생동료들의 인식? [에서 차별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그 인식이 교수님도 나는 [학문적으로 나를] 좀 push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좀 그럴지만 이렇게 해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과 ***교수님 수업을 지난학기에 들었는데 [그 교수님]아시죠? 그 때 세미나. 그래도 그 분은 인식이 깨어 있더라구요. 그 분은 지난 학기에 그러더라고요. 너무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고 다 지나간다고. 다 기억이나. 제 페이퍼 썼는데 어떻게 해봐 뭘 좀 해봐 이거 그냥 냅두지 말고 해보라고. 그리고 학기가 지나가고 봄이 되었는데도 어디 학회에 이거 다듬어서 발표해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지도교수님이 아닌데도. 우리 지도교수님은 그렇게 하나도 없어. 너는 애 보느라 바쁘겠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여유가 없는 교수는 학생을 끌어주는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당신만 잘나서 교수가 된 사람들은 공동체나 사회의 어떤 흥익정신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마인드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연구참여자 F〉

연구참여자 F의 경험은 연구참여자 A의 경험과 비교해 볼 가치가 있다. 두 연구참여자 모두 교수와 상호작용을 하였고, 상호작용한 교수들이 연구참여자들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데서 유사하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상이하다. 연구참여자 A는 해당 교수의 엄마인 자신에 대한 이해부족 속에서 게으른 연구자라는 평가를 듣고, 교수와 학문적 교류의 단절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F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중년 여성 교수를 통해 모성을 가진 여성 연구자의 대학원생 시기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받고, 교수의 조언을 따라 수업의 결과물을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 두 사례는 모성초기의 엄마대학원생이 정서적으로 상처받기 쉬운(vulnerable) 상태를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동시에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모성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는 예시가 됨을 알 수 있다.

2) 상이한 시간체계 : 대학원과 어린이집의 경합

엄마대학원생이 대학원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자녀를 양육할 대리양육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리양육은 가족의 지원, 개인적으로 고용한 베이비시터, 그리고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통해 공급받게 된다. 연구참여자 N은 남편과 시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연구참여자 N의 최대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을 때까지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활용하여 양육하였다. 대학교수인 시부모님은 연구참여자의 학비와 부대비용을 후원하는 것과 함께 주말보육도 담당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에서는 엄마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엄마대학원생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마대학원생의 학업경험은 주변의 전폭적인 후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끊임없는 시간과의 싸움, 학업에 대한 자신의 욕심과 기대치를 재조정하는 과업이다. 주변의 지지와 후원으로 인해 비교적 유리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연구참여자 N이 지적하는 ‘연속적으로 공부할 시간에 대한 간절함’은 대부분의 엄마대학원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이다.

“아침에 딱 와서 만약에 그 논문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 수식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집중해서 이 식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4시가 되면 이제 신데렐라가 되는 거죠. 나는 한 13번까지 밖에 이해 못했고 14번을 아직 드라이브 하지도 못했는데 아이를 데리러 가야하니까. ... 이게 완전히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연속성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완전 너무 절실해요.” <연구참여자 N>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대학원생은 연속성 있게 공부할 시간에 대한 욕구 표현은 오히려 드물게 드러난다. 핵가족 상황에서 육아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감당하는 일반적인 엄마대학원생은 대학원과 어린이집 시간체계가 매끄럽게 연동되지 않는 데서 오는 시간단층들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E는 코스워크 중 대부분의 오전 수업이 아침 9시에 시작하고, 오후 수업이 2시에 시작해 5시에 종료하는 상황을 지적한다. 이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9시 전후에 등원시키고 오후 5시 전후하여 하원 시켜야 하는 엄마대학원생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L은 갑작스런 저녁일정과 숙박이 필요한 학술행사가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대학원생의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럽다고 밝힌다. 특히 갑작스러운 일정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 “애 때문에 안 돼?”라고 묻는 주변 동료들의 반응을 어려움으로 인식한다. 연구참여자 H의 사례는 토요일 오전에 연구실험회의를 진행하는 이공계 대학원에서 엄마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육아의 부담,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이는 부부사이

에 보육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더 강조되는 문화에서 남편에게 주말보육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엄마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가정에 불화가 반복되었던 연구참여자 H의 경험이다.

“수업 듣는 시간 자체도 아침 아홉시, 아니면 두시 너무 딱 정형화 되어 있어서 열시나 열한시에 시작하면 [아이를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학교에 오기] 훨씬 더 조금 편할 수 있고, 오후 수업도 열두 시나 한 시에 시작하면 좀 더 빨리 끝나니까 애들 하원 시키는 것 훨씬 도움 될 텐데...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구나 생각했죠.... 너가 애 키우면서 학교 다니는 건 너의 선택인거고... 그걸 못 해내는 건 너 스스로의 못남이다. [아이를 안 키우는 사람들과] 똑같이 연구실적을 내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깐...”
〈연구참여자 E〉

“저녁에 뭐 해야 하는 거. 답사가고 프로젝트 출장 이런 거... 이런 게 제일 힘들어요. 또 불시에 뭔가 다 같이 저녁 먹으러가지, **씨는 안 돼 애 땀에? 그 게 먼저 가 편하게~ 이런 게 아니고 애 땀에 못가? 이게 뉘앙스가 엄청 틀린 건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도 재는 애 땀에 맨날 일찍 가가 되니까... 그런 게 힘들죠” 〈연구참여자 L〉

“토요일 아침에 밥을 해놓고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오면 집이 개판이 되어 있고 신랑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항상 매주 토요일은 싸우는 날.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양쪽에서 교수는 집으로 칼 퇴근 하니까 집에 가서 내가 일을 다해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났었거든요. 일을 해서 애들 챙겨서 나오고 그걸 2년 하다 보니까 내가 50키로에서 45키로가 된 거야.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싸움은 계속 되고 교수랑 사이는 괜찮았죠. 교수니까 제가 잘 [태도를] 유지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온갖 병이 다 온 거예요. 살 빠지면서 장염에 위경련에 자궁에 뭐. 원래 되게 낙천적이라서 잘 그렇게 안 되는데 너무 놀라고 다리도 부러지고 암튼 온갖 병이 한 번에 온 거예요. 〈연구참여자 H〉

엄마대학원생은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시간체계 속에서 살아간다. 대학원의 시간체계와 어린이집의 시간체계가 그것이다. 표면적으로 이 두 시간체계는 공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작동 상에는 충돌과 간극이 존재한다. 엄마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시간을 요

구하며 경합하는 두 개의 상이한 시간체계가 만들어낸 시간단층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둘 중의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연구참여자 E와 L은 아이에게 집중했을 때 대학원 동료로부터 듣게 되는 부정적 평가를 보여준다. 한편, 연구참여자 H의 경험은 대학원의 시간체계에 집중했을 때 경험하는 가족 내 불화와 갈등의 양상을 보여준다.

3) 물젠더적 공간의 모성배제

엄마대학원생은 임신시기와 출산 후 수유기, 그리고 자녀와 동반하여 학교를 방문했을 때 모성배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공계를 비롯한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전공에 실험실 등에서는 임신 중인 대학원생에 대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내에 모유를 유축하기 위한 공간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엄마대학원생은 화장실과 청소노동자의 휴게실, 승용차 안에서 유축하는 등 유축공간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우린 실험이 화학약품 되게 많이 만지거든요. ..선택권이 없어요.... 직접 연구자가 실험을 처지고 해야 하니까. 불평을 하면 나는 실험을 하지 말아야 하니까. ” <연구참여자 J>

“화장실 옆에 작은 공간이 있는거야. 두들겨봤어 뭐하는 데인지. 그러니까 그 건물을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쉬는 한평 두평짜리 공간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런 상황으로 유축해야 하는데 전기콘센트가 없는데가 있으면 해도 될까요 하니까 불쌍하게 보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업 세시에 끝나면 30분 유축하고. ...” <연구참여자 F>

“[공간이 유축에] 너무 적합하지 않아요. 저도 사실 완모[완전 모유수유]하고 싶었는데 3 개월 만에 복귀하면서 4 개월째에 유축기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희 건물에 유축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 그리고 제가 실험이 막 바쁘고 이럴 때에는 유축 급하게 해야 하는데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 게 일이니까 젖이 통통 불어가지고 벽돌처럼 된 상태에서 뛰어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젖이 확 준거예요. ” <연구참여자 K>

연구참여자 J의 사례는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침의 부재를 나타낸다. 한편, 연구참여자 F와 K의 경험은 모유수유를 위한 유축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간의 물젠더성이 모성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I의 경험은 수유공간이 마련되어 있어도 그것이 용도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엄마대학원생에게 소외감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I는 ‘수유실’이라는 명패는 달려있지만, 전혀 수유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을 통해 대학원사회가 자신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애나 보라’는 메시지로 인식한 경험을 소개하며, 그것을 상처로 인식했다고 밝힌다. 유사한 경험이 연구참여자 B와 E의 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연구참여자 E는 학생인 자신이 자녀를 데리고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죄인취급’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힌다. 이 느낌은 연구참여자 B의 주관적 인식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대학교수인 부친의 영향으로 대학이라는 사회속에서 살아온 연구참여자 B의 생애과정을 고려했을 때, 자기연민이나 열등감으로 위축되어 느끼는 자격지심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대학이라는 공간이 물젠더성을 배태함으로써 자녀를 동반한 엄마대학원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과 함께 대학이라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진 시각 역시 아이를 동반한 여성, 자녀를 동반한 엄마대학원생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연구참여자 E도 휴학계를 내기위해 자녀를 데리고 학교를 방문한 경험을 통해 주변의 비우호적인 시각을 느꼈다고 기술한다.

“수유실이 휴게실이랑 붙어 있는데, 학교 다닐 때도 여기서 수유가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애를 낳고 지금 보니까 그게 진짜 불편한거예요. 청소도 안 되어있는 공간이고... 정말 말 그대로 공간만 있는 거예요. 애 낳고는 학교를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애 어릴 때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애 크고 나오라는 걸 보서는 한 2-3년간은 집에서 애나 보세요라는 느낌을 너무 받았어요. 그게 너무 상처였어요.” <연구참여자 I>

“[아이들 용]시설이 있고 없고 보다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에게 더 주목이 되잖아요. 사람들 시선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애들 데리고 거길 가게 되는

건데, ... 왜 애를 저런 데에 데리고 오나 그런 시선, 인식이 힘든 것 같아요. [학교]오면 죄인 취급받죠. 식당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학생이어서 학생인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 식당에 왔는데 마치 애 엄마가 왜 학교 식당에 와가지고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나 이런 눈총.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B〉

“언제인가 내가 휴학계를 내려고 학교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온 애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기띠 맨 여자가 왜 학교를 저렇게 돌아다닐까 신기한 눈초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일상적이지 않다는 내용인거고, 학교에 사실 애를 데리고 와서 얼마든지 같이 공부할 수 있지만 어디에 애를 풀어놔야할지 풀어놓을 데도 없고 데리고 오면 그야말로 정말 민폐밖에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민폐녀가 되는 건 괜찮은데, 애가 민폐애가 되니까” 〈연구참여자 E〉

위의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임신을 하고, 모유 유축이 필요하며, 자녀를 동반한 여성대학원생의 모성에 대해 맹목(盲目)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 공간,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하며, 이런 물젠더성으로 인해 엄마대학원생의 모성을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제도적 소외

엄마대학원생은 학교와 사회에서 모성보호제도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법적 근로자성을 가지지 못한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보육제도에서도 소외를 경험한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이런 제도적 소외를 학교시설 이용의 과정, 대학행정, 학사제도, 실험실 환경, 보육제도에서의 맥락에서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D는 도서관으로 대표되는 학교시설에서 자녀를 동반한 엄마대학원생의 입장에서는 이용이 불가하며, 누군가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는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감과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힌다. 연구참여자 I도 이런 엄마대학원생의 상황을 ‘사회적 약자’라고 인식하는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전달할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학교에 와서 글을 한 줄도 못 쓰고 갈지라도 아이를 맡기고 도서관을 편하게 가서 논문이라도 검색하고 올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항상 원가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 반복적으로 쌓이는 논문검색과 도서관 서가에 꽂히는 그 책들을 보며 주제를 생각해 낼 수 있고, 그것이 누적된 결과물로서의 주제선정과 논문작업인데... 나는 도서관대 마음대로 못가는 거예요. 내가 도서관을 갈 때조차도 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움이 없으면 살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되게 무기력증이 오고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연구참여자 D〉

“제가 어디서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썼더니만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대요... 가장 큰 문제는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다가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걸 어디다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연구참여자 I〉

연구참여자 C와 L은 현재와 같이 제도적 소외로 인해 선택지가 제한된 엄마대학원생의 상황을 외부의 ‘강제’에 의해 ‘포기’되어진 것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이공계를 제외한 전공의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가 극대화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출산 후 연구실로 빠르게 복귀해야 하는 이공계 대학원생과는 달리 원하는 만큼 휴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2년부터 출산육아휴학을 보장하는 국공립대학에서는 엄마대학원생이 자녀보육을 위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 그러나 표면적 자유와 달리 궁극적으로는 자유제한의 상태이다. 교육정책과 대학에서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육아 양립에 대한 정책이 부재해 학업-육아의 병행을 위한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표면적으로 자유롭게 보이는 이 상황은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제도적 무관심과 방임이다. 여기서 엄마대학원생은 자신이 경험을 강제에 의한 휴학, 선택지의 제약으로 인해 포기된 학업과정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11)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엄마로서....[지금같이 엄마학생들 정책 없는 것도 우리를] 그냥 강제로 쉬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일단 올 수 있게만 해주면]휴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란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자기 선택의 문제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데. 뭐 강요당하는 거잖아요. 애를 낳았으면 24개월 36개월까지는 엄마가 끼고 살아야한다 이런 건 누가 만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놓고 24개월 쉬고 뭐 법적[휴가] 그런 거 3개월 다 쉬고 그러면 안 그런 엄마 되는 거고 [자기 커리어나 학업에] 근성 없는 엄마 되는 거고.”
〈연구참여자 C〉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럴 땐 학교에 올 수 없는 거죠. 공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심지어 집에 애기를 봐주시는 분이 있어서 나는 한 학기동안 계속 이거를 ... 지금 놓으면 다음 하기에 복학을 못할 것 같아서 한 과목을 들어서 명맥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휴학을 해버리면 네트워크가 떨어지고 교수님 이랑 다른 팀원들과 멀어지면 결국 복원하기가 힘든 문제인데.. 수업을 하나 들어도 2-3일에 한번씩 얼굴 보면서 네트워크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 자체를 포기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연구참여자 L〉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엄마대학원생의 모성보호, 학업-육아 양립은 전적으로 ‘교수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연구참여자 J는 교수의 임신부에 대한 이해부족 속에서 자신의 임신출산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경험을 소개한다. 연구참여자 L도 교육제도 안에는 노동제도에서 일반화된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는 단축근무, 초과수당 지급과 같은 제도들이 미비한 현실을 지적한다. 이 참여자들은 현재 엄마대학원생이 겪는 경험은 제도의 부재 속에서 전적으로 교수의 재량에 의해 안녕의 수준이 결정되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기술한다.

“회사 같은 경우는 출산전휴가 출산후 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예 공식이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고 사실 교수재량이란 말이에요...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런 게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옛날에는 발 매다가 애를 낳았는데 뭘 그러냐고 대놓고 그런 애길했어요. ... 만삭으로 왔다갔다 실험을 하는데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끝까지..” 〈연구참여자 J〉

“회사는 임신하면 어쨌거나 노동법에서 하루에 한 시간 단축근무하거나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죠 학교는... 회사는 법적으로 기본 근로시간 하루 8시간, 80 시간 넘으면 야근수당 줘야하고 이런 제재가 있는데 학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교수님이 부르면 가야하고.. 교수의 임의 재량이에요.”
 〈연구참여자 L〉

한편, 엄마대학원생은 대학원생의 지위가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아 어린 이집 입소 대기 우선순위에서 불이익을 경험한다¹²⁾. 시간강사로 세 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연구참여자 C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녀의 보육시설 입소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때 연구참여자 C는 자신이 대학원생으로 대학강사로 자녀를 낳아 기르며 최선을 다해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 G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이지만 보육시설 입소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 G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개인적으로 대리 보육자를 고용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대학원생이라는 지위가 제도적으로도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편적 복지제도인 보육제도를 이용하는데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연구참여자 G의 경험을 통해서는 보육시설 입소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리보육자 고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하는 현실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 신청할 때, 맞벌이 인정받으려면 재직증명서 내야하는데 가장 많은 시수를 강의하고 있던 학교에서 그걸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분노가 많았어요. 대학원생 풀타임에도 그걸 해주지 않고, 전업강사인데도 해주지 않고. 나는 정말 맞벌이하느 어느 어떤 여성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고, 이 사회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데에서도 나의 노력이나 이런 지위가 카운팅되지 않는다는 것...”〈연구참여자 C〉

12) 한국은 영유아무상보육서비스가 존재하는데, 맞벌이로 인정받으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5년 1월~2월이었는데, 2015년 5월 개편된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시스템에 대학원생 부모도 맞벌이에 포함되게 되었다.

“학생이면서 엄마인 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배부르게 보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지원도 못 받고, 취업한 엄마들만 재직증명서 가진 엄마들만 우선이고 전업주부랑 똑같은 상황으로 내 물리는 거죠. 우린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고.... 학생이라는 지위자체가 돈도 못 벌고 그렇다고 애를 풀타임으로 볼 수도 없고”〈연구참여자 G〉

V. 결론

1. 연구의 결과

본 연구가 주목한 엄마대학원생은 그동안 학문적으로 알려진 바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엄마대학원생들은 제한된 시간과 물리적 힘을 두고 대학원생의 역할과 엄마의 역할이 경합하는 역할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엄마대학원생은 우선, 대학원생인 엄마로서 생산과 재생산의 딜레마, 우울감과 자격지심, 모성비난과 자책감을 경험한다. 이는 엄마가 되기 이전 높은 성취도를 보여 왔던 엄마대학원생이 출산 이후 학업과정에서 도출하는 결과물이 이전과 같지 못한데 대한 자신의 자책감, 외부의 비난에서 우울감과 자격지심을 경험하게 된다. 또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주변으로부터 받는 나쁜 엄마라는 모성비난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녀를 희생시킨다는 자책감도 공부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경험으로 나타났다. 다음, 엄마인 대학원생으로서 대학원동료와 교수의 이해부족을 대면하게 되고, 대학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상이한 시간체계를 살고, 엄마대학원생의 젠더수행이 고려되지 않은 공간에서 모성성의 소외를 경험한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드러난 연구실 동료와 교수는 엄마대학원생을 대학원생으로 인식한다. 이들이 엄마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엄마의 사정을 가진다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오히려 엄마라서 자녀를 보육해야하고, 보육시설에 등하원을 시켜야하고, 저녁에 아이를 돌봐야하며, 주말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나타난다. 이는 엄마대학원생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이해의 부족 속에서 엄마대학원생은 상처받기 쉬운 상태의 경

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엄마대학원생은 대학원이라는 시간체계와 어린이집이라는 시간체계를 살아간다. 그러나 두 시간체계의 연동은 매끄럽지 못하고 시간단층을 만들어낸다. 상이한 두 시간체계가 벌이는 경합 속에서 엄마대학원생은 모성에 대한 비난과 대학원생의 역할 수행에 대한 비난을 감수한다. 엄마대학원생의 경력추구 공간인 대학은 임신부를 위한 공간, 모유 수유 및 유축을 위한 공간, 자녀를 동반한 엄마대학원생을 위한 공간이 부재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공간의 부재는 곧 제도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런 제도와 공간의 부재에서 엄마대학원생은 젖이 벽돌처럼 굳어 유축 할 곳을 찾아 뛰고, 청소노동자의 선의로 유축 할 공간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임신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재한 실험실에서 유독물질로 실험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한 것은 아예 학교에 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엄마대학원생은 자녀와 동반에서 학교에 왔을 때 경험하는 공간적 부적절함과 함께 자신과 아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심리적 부적절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한 엄마대학원생은 학교와 연구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다.

이런 엄마역할과 대학원생 역할 수행의 맥락과 경험은 엄마대학원생 자신의 말을 통해 발견되었는데 이는 엄마대학원생에 관한 국외문헌이 보고하는 내용과 두 가지 유사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밝힌 엄마대학원생의 경험은 박사과정의 엄마대학원생으로 모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탐색한 Schneider의 연구(2008)에서 드러난 결과와 유사하다. 이 연구는 공부하는 엄마라는 것에 대한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주변사람의 비난에서 엄마대학원생의 상처받기 쉬운 모성경험이 나타났는데, 이런 서구의 엄마대학원생의 경험과 본 연구의 엄마대학원생의 모성비난 경험은 유사한 경험이다. 둘째, 학문후속세대 양성과정이 여성의 재생산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 Mason & Ekman(2007)이 지적한 제도적 한계가 본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국내의 여성학문후속세대 생산과정이 생물학적 재생산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에게 불리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편, 본 연구는 엄마대학원생에 관한 국외의 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나타났다. 그것은 국내의 엄마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

와 경제적 무력감이다. 국외의 선행연구는 보편적 복지제도나 대학의 부모 학생 지원정책을 통해 엄마대학원생이라는 존재가 정부 혹은 대학 자체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Mayer & Tikka, 2008; Springer et al., 2009). 이와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국내의 연구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제도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의 경험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특히, 대학원 과정에서 학비면제와 생활비 지원을 받는 서구의 대학과는 달리 한국의 대학원은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져야 한다(서정원, 2015; 한국여성과학기술수장연합회, 2014; 한국연구재단, 2014). 이런 현실에서 보육부담이 높은 엄마대학원생은 학비를 비롯한 학업비용과 생활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엄마대학원생의 경제적 무력감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2. 고등교육에서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엄마대학원생이라는 인구집단에 주목하였다. 엄마대학원생은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며 학문적 경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런 면에서 엄마대학원생의 생활세계는 워킹맘의 일 - 가정 양립 경험과 유사하다. 하지만 워킹맘의 일 - 가정 양립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부처가 관심을 갖는 것과 달리, 엄마대학원생의 학업 - 육아 양립은 아직까지 정부부처의 관심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못하다(한국연구재단, 2014). 이는 공부가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깊다. 대학원생이 하는 공부는 경제적 성과물이 없으며, 오히려 오랜 경제적 투입과 기회비용을 지불하고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성격의 일이다. 이에 대해 사회에서는 공부를 유희로 인식하고, 엄마대학원생을 지적유희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존재로 묘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과정에서 엄마대학원생은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학업과 육아를 감당해야 하고, 학업 경력의 단절, 그리고 학위과정의 지연 등을 경험한다.

이는 여성 연구인력, 여성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의 누수현상으로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는 이에 대한 예방책 논의가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져 왔다(Mason & Ekman, 2007). 우리나라의 경우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고용보험에 근거한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여 제공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로 인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엄마대학원생은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엄마대학원생의 학업-육아 양립 경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엄마대학원생이 출산을 통해 저출산극복에 기여하고, 여성전문인력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만,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지원에서는 배제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교육에서의 정책적 함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우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에 있는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 양성과정에서 학업과 육아를 양립해야하는 부모학생에 대한 정부와 각 고등교육기관 장(長)의 지원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다음, 엄마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의 부모학생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의 학업-육아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모델의 개발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노르딕 국가는 보편적인 가족친화정책을 통해서 부모학생의 학업-가정양립을 지원하고 있었고, 미국은 개별 대학의 지원을 더 강조하고 있다(Mayer & Tikka, 2008). 부모학생의 학업-육아 양립 정책 수립에 있어 해외의 선례들을 파악하여, 우리의 현실에 가장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연구를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자성을 전제로 제공되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머무는 대학원생은 국가적 측면에서는 전문연구자가 될 인적자원이며, 학문후속세대이고, 미래세대의 재생산을 담지(擔持)한 집단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은하·임연옥·박경숙·김남영 (2008). 기혼여자 대학원생의 다중역할 수행 경험과정. 성인간호학회지. 제20권 제1호.
- 박지영(2013). 『가속화 사회의 시간경험에 대한 연구 - 전문직 여성들의 생애시간, 일상적 시간, ICT가 생성한 시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 박사학위 논문.
- 서울대학교(2014).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서울대학교.
- 신윤정의 5인. (2009),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국민체감도 및 우선순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2014).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2014년 4차 인구포럼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세대간 소통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4). 「일·가정양립가능한 캠퍼스 실현을 위한 과제 포럼 자료집」.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연구재단(2014). 「대학의 부모학생 학업-가정 양립 정책 수립을 위한 워크숍 자료집」. 한국연구재단.
- 홍현미라·권지성·장혜경·이민영·우아영 (2010).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학지사.
- Adamo, Shelley A.,(2013). Attrition of Women in the Biological Science: Workload, Motherhood, and Other Explanations Revisited. *BioScience*. Vol.63 No.1.
- Andres, Sari M. (2004). Why the Academic pipeline leaks: Fewer Man than Woman Perceive Barriers to Becoming Professors, *Sex Roles*, Vol.51.
- Bartky, Sandra Lee. (1990). *Femininity and Domination: Studies in the Phenomenology of Oppression*. Routledge.
- Creswell, J.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GlenMaye, Linnea. (2003). 'Empowerment of Women'. In Gutierrez,

- L. M., Parsons, R. J., & Cox E. O. (Eds.),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A sourcebook.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Kuperberg, Arielle. (2009). Motherhood and Graduate Education: 1970–2000. *Population Research & Policy Review* 28:473–504.
- Lynch, Karen Donna. (2008). Gender Roles and the American Academe: A Case Study of Graduate Student Mothers. *Gender and Education* Vol. 20, No.6 585–605.
- Mason, Mary Anne & Ekman, Eve Mason. (2007). *Mothers on the Fast Track*, Oxford University Press.
- Mayer, Audrey L., Tikka, P.M. (2008). Family-friendly Policy and Gender Bias in Academia. *Journal of Higher Education Policy and Management*. Vol.30, No.4. pp.363–374.
- M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 Padgett, D.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Sage Publications.
- Springer, Kristen W., Parker, Brenda K., and Leviten-Reid, Catherine. (2009). Making Space for Graduate Student Parents: Practice and Politic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30.
- Stack, Steven. (2004). Gender, Children, and Research Productivity,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Vol.45.
- Schenider, Dana. (2008). Reflections from a Student of Mothering,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Vol.74, No.4
- Tillmann, Lias M. (2011). Labor Pains in the Academy. *Cultural Studies <=> Critical Methodologies*. 11(2). pp. 195–198.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Sage.
- 박길자 기자, “캠퍼스 ‘엄마학생’ 모성권 보호해야” 여성신문, 2014년 4월 3일 입력,
http://www.womennews.co.kr/news/69327#.VWMx_E_tmkq (2015년 5월 10일 접속)

- 박수지 기자, “직장맘보다 더 고달픈 스티디맘... 아이 둘러업고 등교” ,
한겨레신문,, 2014년 5월 8일 입력,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636170.html> (2015년 5월
10일 접속)
- 박순봉·노도현 기자, “전쟁과 배려 사이... 한국에서 스티딩맘으로 산다
는 건” 경향신문, 2015년 1월 16일 입력, A16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201501162121205 &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1162121205&code=940100) (2015년 4월 25일 접속).
- 서정원, ‘학위와 양육’ 어느 쪽도 포기하지 않도록” , 미디어 일다, 2015년 5월 4일,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077§ion
=sc1](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7077§ion=sc1) (2015년 12월 6일 접속)
- 윤석만 기자 , “아기 안고 도서관... ‘스티딩맘’ 서울대를 바꾸다” 중앙일보,
2014년 6월 26일 입력, A18면,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
=15073677&clo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073677&cloc=olink|article|default)(2015년 4월 25일 접속)
- 조성은 기자, “캠퍼스 ‘엄마학생’ 뭉쳐 서울대를 바꿨다... 서울대부모협동
조합 맘인스누” 국민일보, 2014년 6월 9일 입력, 10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
=0922702556&code=11131100&cp=nv](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02556&code=11131100&cp=nv) (2015년 4월 25일 접속)
- 차현아 기자, “여성연구자에게 빗장 닫힌 대학 연구실” 한국대학신문,
2014년 12월 14일 입력,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2179>,
(2015년 5월 10일 접속)

Abstract

The Phenomenology of the Graduate Student Moms' Study-Childrearing Experiences in the Research Universities in South Korea

Jeong-one Hannah Seo

Graduate student parents are a newly emerging population with the increase of higher education for females; the time period for a female to accumulate human capitals as the next generation of the academia overlaps with the time period for reproduction. Graduate student moms are in charge of both tasks as a graduate student and a mother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government and the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not equipped with the supportive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m to help keeping the balance between the different tasks in the academia and home. Therefore, the mothers are under the circumstance of having a lack of understanding from the colleagues and their supervisors. And, they are having a difficulty handling different time schedules of daycare and the graduate school programs. Besides, student moms are marginalized on campus where maternity and gender performances are not considered. Also, their existential distresses, the insecure feeling of not-belonging either group, are reported to have been caused by their financial helplessness, dual duties, and the isolation from the institution.

key words : graduate student others, study-child rearing, phenomenological study